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과목의 난이도와 선택률 분석*

정연호** · 한경동*** · 장경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사회탐구 심화선택 과목으로 응시한 학생이 사회탐구 과목 응시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학년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과목 응시율은 2012학년도에 11.3%로 크게 낮아져 2007학년도 27.8%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경제 과목에 대한 응시율이 낮아진 데는 그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한다. 특목고 학생을 비롯한 우수한 학생의 경제 과목에 대한 응시율이 높아지다보니 과목별로 난이도를 맞춘다는 이유로 경제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어 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악순환의 구조가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검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점수를 추정한 후 고등학교에서 선택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응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경제 과목에 대한 선택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패널모형과 단순회귀모형을 통해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률과 경제 과목의 응시율을 분석한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려울수록 고등학교에서의 선택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응시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경제 교육, 사회탐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선택률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0, A2, I2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유익한 논평을 통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김영우 교수님, 2012 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참가자 및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 감사사를 드린다. 이 논문에 남아 있는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 주저자, 건국대학교 경상학부 강의교수, 전화: (02) 450-0478, E-mail: yunster@empas.com

*** 공동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화: (02) 2173-3101, E-mail: khahn@hufs.ac.kr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전화: (032) 860-7861, E-mail: kjang@inha.ac.kr

논문투고일: 2012. 6. 27 수정일: 2012. 8. 20 게재확정일: 2012. 9. 17

I. 머리말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 시 주요 전형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전국 수준의 시험이다. 1994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은 범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와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는 경제를 비롯해 정치, 법과 사회, 사회문화, 윤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등의 11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탐구 영역 시험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윤리적·역사적·지리적·사회적 상황 등을 소재로 제시하고,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대학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회과학적 탐구 능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사회탐구 영역 시험은 대학에서 인문·사회 계열의 학문을 수학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탐구 능력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윤리, 역사, 사회, 지리 계열의 교과를 통해서 함양해야 할 민주 시민의 자질을 측정한다. 사회탐구 영역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은지용 외, 2004).

고등학교에서 경제는 경제적 사고력과 경제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이다. 이 과목은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토대로 하여 소비자, 생산자로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의 구실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한 과목으로서, 이를 위하여 내용 구성과 학습방법의 근간을 합리적 의사결정에 두고, 학습자의 인식 능력에 맞는 내용 선별과 수준 조정, 우리 경제현실의 이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이론 원용 등을 통한 학습경험의 의미 제고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한편, 경제교육 실태, 학업 성취도, 합리적 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최종민, 2008; 이상준, 2007; 한진수, 2011)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통계 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아 매우 제한적이다. 이의영·김현철(2001)에서는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 결과 자료를 이용해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분석을 하였다. 특히, 200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 과목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과목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서 세계지리 12.99, 세계사 11.79, 정치 10.96, 사회·문화 10.37, 경제 10.13으로 경제 과목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안병근(2010)은 2008년 2학기 전국의 4개 교육대학교의 1학년 학생 7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 과목을 좋아할수록, 그리고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과목이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경제를 덜 선택하고 쉽다고 생각할수록 더 선택함을 보였다. 또한 한경동·장경호(2011)는 한국교육고용패널 5차년도(2008년) 자료에서 조사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이용해 사회탐구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의 특성을 비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로짓회귀모형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할수록, 사교육을 받는 경우 수학 과목에 대한 성취감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 지역이 시 지역인 경우가 읍면 지역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와는 달리 학생의 성별, 교과목에 대한 선호 또는 성취감, 가정환경 등과 같은 미시적 요인보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제도적·거시적·정책적 변인에 초점을 맞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경제’가 속해 있는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별 선택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의 경제 과목 개설률 및 선택률, 경제 과목 선호도, 경제 과목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경제 교과목 평가시스템으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가 속해 있는 ‘사회탐구’ 과목에 대한 선택률을 분석하여 향후 경제교육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자료 및 분석 방법

1. 자 료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시점인 2005학년도 이후의 시기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가 등급으로만 발표된 2008학년을 제외한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별 ‘선택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응시율’을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선택률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심화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학생의 비율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서 나타난 지역별 자료를 통해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가 선택률에 미치는 영향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의 선택률과 관련된 공식 자료는 2010년도까지만 발표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분석기간에는 2011년 또는 2012학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응시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해당 과목에 응시한 학생의 비율로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시율과 관련된 분석은 2012학년도 자료를 포함하여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응시율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지역별 특정보다는 경제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가 응시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8학년도에 등급만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표준점수, 등급 및 백분위로 발표하고 있다. 그 동안 원점수는 발표되지 않아 각 과목의 난이도는 공식적으로는 최고 표준점수를 이용하거나 비공식적으로 학교 현장이나 학원 등에서 몇 문제를 틀린 학생까지 1등급이 되었는지 조사하여 추정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도자료에 나타난 표준점수 도수분포표를 이용하여 원점수의 분포를 도출한 후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추정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여 원점수를 추정한 것은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난이도가 고등학생의 사회탐구 과목 선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패널모형을 이용하였다.

$$y_{ijt} = \alpha + \beta x_{it} + \gamma z_t + v_j + \epsilon_{ijt}, \quad (1)$$

$$i = 1, 2, \dots, M, \quad j = 1, 2, \dots, N, \quad t = 1, 2, \dots, T$$

위 식에서 y_{ijt} 는 조사 대상 기간 중 t 시기에 j 지역에서 사회탐구 과목 i 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을 나타낸다. 국사 과목의 경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난이도에 따른 선택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 패널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x_{it} 는 t 학년도에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탐구 과목 i 의 난이도를, z_t 는 지역이나 과목에 관계없이 시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응시할 수 있는 최대 과목 수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v_j 는 측정되지 않는 확률변수로 지역의 고유 특성을 의미하고 ϵ_{ijt}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단, v_j 와 ϵ_{ijt} 는 모두 패널모형의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가정하였다.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 각 과목의 난이도를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인식한다고 가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과목의 난이도를 과목별 평균점수와 사회탐구 영역 평균점수의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 상대적 난이도로 측정하였다.¹⁾ 그러나 지역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발표되지 않아 지역에 관계없이 시기별로 동일한 상대적 난이도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선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만을 이용하였다.²⁾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응시할 수 있는 최대 과목 수는 2012학년

- 1) 본 연구에서 정의한 난이도는 사회탐구 영역 전체 과목의 원점수 평균에 대한 과목별 원점수 평균의 비율에 (-)를 부여한 값이다(과목별 난이도 = $-\frac{\text{과목별 원점수 평균}}{\text{사회탐구 원점수 평균}}$). 즉, 본 연구에서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정도'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고등학교 현장에서 해당 과목의 상대적 난이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분석에서 6월과 9월에 실시되는 모의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상대적 난이도를 제외한 것은 지역별 선택률이 연간 자료이기 때문에 모의시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대 응시할 수 있는 사회탐구 선택과목 수가 4개에서 3개로 축소됨에 따른 선택률 하락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변인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와 최대 응시 과목 수는 시차를 두고 선택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등학교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심화선택 과목은 2학년 또는 3학년에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연도의 2학년과 3학년 학생 수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선택률을 계산하였다. 이로 인해 특정 학년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와 선택률의 관계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9학년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는 2009년에 2학년이 될 학생뿐만 아니라 2010년에 2학년이 될 학생들의 선택률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최대 응시 과목 수의 경우에는 선택률에 미리 앞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2012학년도에 최대 응시 과목 수가 3개로 축소된 것은 2010년에 2학년이 되는 학생뿐만 아니라 2011년에 2학년이 되는 학생의 선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는 1년 늦은 시차를, 최대 응시 과목 수는 2년 앞선 시차를 적용하여 패널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모형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된다. 고정효과모형은 위 식에서 설명변수와 측정되지 않은 확률변수인 v_i 가 상관관계를 지니지 않는다는 가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robust)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확률효과모형은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효율적인(efficient) 추정이 가능한 반면 설명변수와 측정되지 않은 확률변수인 v_i 가 상관관계를 지니지 않는다는 가정이 위배될 경우 편의문제를 낳을 위험이 있다.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Hausman 검정을 통해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경제 과목에 초점을 맞춰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가 고등학생의 응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위와 같은 패널모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역별 난이도를 사용할 수 없어 결국 패널모형의 변인은 기껏해야 5개 연도밖에 되지 못해 설명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순회귀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뿐만 아니라 6월과 9월에 실시되는 모의고사의 결과도 자료로 사용하였다.

$$y_t = \alpha + \sum_{i=1}^3 \beta_i x_{t-i} + \gamma z_t + \delta_1 D_{1t} + \delta_2 D_{2t} + \epsilon_t \quad (2)$$

$$t=1, 2, \dots, T$$

위 식에서 y_t 는 조사 대상 기간 중 t 학년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에 응시한 학생의 비율을 나타낸다. 설명변수로서 x_t 는 t 학년도에 실시된 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의 난이도를, z_t 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응시할 수 있는 최대 과목 수를 나타낸다. 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나타나는 응시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9월 모의고사를 나타내는 D_{1t} 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타내는 D_{2t} 와 같은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ϵ_t 는 오차항을 의미하며 회귀분석모형의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가정하였다.

III. 분석결과

1. 일반계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 선택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사회탐구 심화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학생은 <표 1>과 같이 2005년 이후 평균 116,970명으로 전체의 26.0%에 불과하다. 경제를 사회탐구 심화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학생의 비율을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등학교(실업계와 전문계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측정하면 그 비율은 더 낮을 것이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2008년 기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이 일반계의 약 35%이고 경제 과목 선택률이 4.2%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가운데 경제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비율은 20%를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과목별로는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전체의 7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지리 과목이 59.4%, 사회문화 과목이 56.6%, 윤리와 사상 과목이 55.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사회탐구 심화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남학생은 2005년 이후 평균 64,714명으로 남학생 전체의 27.4%에 불과하지만 여학생 평균 52,390명으로 여학생 전체의 24.4%인 것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여학생의 사회탐구 과목 선택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은 여학생이

〈표 1〉 사회탐구를 선택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과목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전 체	경제	104,732	25.4	110,760	26.4	112,448	26.4	122,478	27.0	128,682	26.4	119,450	24.2	116,970	26.0
	사회문화	227,836	55.4	230,252	54.8	241,172	56.6	263,356	58.0	286,948	58.8	275,684	55.8	256,212	56.6
	정치	101,594	24.8	105,944	25.2	106,706	25.0	106,856	23.6	127,210	26.0	181,762	36.8	128,164	27.8
	법과사회	82,416	20.0	84,950	20.2	81,694	19.2	87,072	19.2	91,432	18.8	109,746	22.2	90,578	20.0
	윤리와사상	219,468	53.4	227,544	54.0	240,596	56.4	253,200	55.8	283,190	58.0	265,524	53.6	250,172	55.4
	전통윤리	115,780	28.2	123,570	29.4	135,604	31.8	139,498	30.8	158,866	32.6	162,932	33.0	141,474	31.2
	한국지리	235,690	57.4	245,122	58.2	254,292	59.6	269,404	59.4	303,634	62.2	291,702	59.0	268,876	59.4
	세계지리	43,282	10.6	46,592	11.0	47,670	11.2	50,016	11.0	53,284	11.0	54,884	11.0	49,604	11.0
	경제지리	19,460	4.8	26,190	6.2	26,074	6.2	32,070	7.0	38,946	8.0	37,888	7.6	31,696	6.8
	한국근현대사	281,040	68.4	284,146	67.6	304,586	71.4	316,596	69.8	353,342	72.2	343,862	69.4	316,324	70.0
	세계사	72,046	17.6	75,338	18.0	70,134	16.4	75,674	16.6	77,058	15.8	69,786	14.2	73,448	16.4
	소계	410,989	100.0	420,828	100.0	426,351	100.0	453,582	100.0	488,754	100.0	494,899	100.0	449,234	100.0
	남 학 생	경제	57,862	27.0	58,858	26.6	60,498	27.0	66,204	28.0	72,830	28.6	69,154	26.6	64,714
사회문화		103,430	48.2	105,172	47.6	111,054	49.6	120,370	51.0	132,478	52.0	126,636	48.8	117,526	49.6
정치		46,872	21.8	49,110	22.2	47,190	21.2	45,770	19.4	53,808	21.2	84,912	32.6	58,096	24.2
법과사회		39,182	18.2	40,718	18.4	38,882	17.4	39,666	16.8	40,622	16.0	50,328	19.4	41,946	17.8
윤리와사상		102,740	48.0	105,718	48.0	112,272	50.2	113,994	48.2	130,790	51.4	122,590	47.2	115,484	48.8
전통윤리		54,358	25.4	61,270	27.8	64,194	28.8	67,200	28.4	74,940	29.4	78,846	30.4	67,808	28.6
한국지리		106,452	49.6	113,152	51.2	116,400	52.0	121,362	51.4	137,596	54.0	131,190	50.6	121,952	51.6
세계지리		22,380	10.4	22,670	10.2	24,584	11.0	24,052	10.2	25,648	10.0	26,966	10.4	24,488	10.4
경제지리		11,242	5.2	15,024	6.8	14,344	6.4	17,658	7.4	20,922	8.2	21,776	8.4	17,644	7.4
한국근현대사		134,834	62.8	137,138	62.2	144,980	64.8	149,452	63.2	163,262	64.0	162,170	62.4	149,462	63.2
세계사		37,414	17.4	39,088	17.8	37,848	17.0	39,420	16.6	40,886	16.0	36,344	14.0	38,556	16.4
소계		214,370	100.0	220,636	100.0	223,472	100.0	236,318	100.0	254,738	100.0	259,707	100.0	234,873	100.0
여 학 생		경제	46,870	23.8	51,902	26.0	51,950	25.6	56,274	26.0	55,852	23.8	50,298	21.4	52,390
	사회문화	124,406	63.2	125,080	62.4	130,118	64.2	142,986	65.8	154,472	66.0	149,050	63.4	138,692	64.2
	정치	54,722	27.8	56,834	28.4	59,516	29.4	61,086	28.2	73,402	31.4	96,850	41.2	70,242	32.0
	법과사회	43,236	22.0	44,234	22.0	42,812	21.2	47,406	21.8	50,810	21.8	59,420	25.2	48,688	22.4
	윤리와사상	116,728	59.4	121,826	60.8	128,324	63.2	139,206	64.0	152,400	65.2	142,936	60.8	134,722	62.4
	전통윤리	61,422	31.2	62,302	31.2	71,412	35.2	72,300	33.2	83,926	35.8	84,086	35.8	73,706	34.0
	한국지리	129,238	65.8	131,970	66.0	137,892	68.0	148,044	68.2	166,040	71.0	160,512	68.2	146,942	68.0
	세계지리	20,902	10.6	23,924	12.0	23,088	11.4	25,964	12.0	27,636	11.8	27,918	11.8	25,158	11.6
	경제지리	8,218	4.2	11,166	5.6	11,732	5.8	14,414	6.6	18,024	7.8	16,114	6.8	14,084	6.4
	한국근현대사	146,206	74.4	147,010	73.4	159,606	78.6	167,144	77.0	190,080	81.2	181,692	77.2	166,920	77.2
	세계사	34,632	17.6	36,250	18.2	32,286	16.0	36,256	16.6	36,172	15.4	33,442	14.2	34,908	16.4
	소계	196,620	100.0	200,192	100.0	202,879	100.0	217,264	100.0	234,017	100.0	235,192	100.0	214,361	100.0

주: 1)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인문, 예술, 체육, 외국어, 과학 및 국제 고등학교가 포함되었음.

2) 각 과목을 선택한 학생 수는 2학년과 3학년 학생 수의 합계를 이용하였고, 비율은 학생 수의 합계를 한 학년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측정된 것으로 일반적인 비율에 2를 곱한 값과 같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남학생보다 인문계열을 더 선호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제 과목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선택률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제 과목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 27.0%로 높아졌으나 2009년에 26.4%로 낮아지고 2010년에는 24.2%로 낮아졌다. 특히, 일반사회 영역에서 학생의 선택률이 낮아진 것은 경제 과목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별 일반계 고등학교 경제 과목 선택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경제 과목 선택률은 지역별로 <표 2>와 같이 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에서는 서울이 2005년 이후 평균 38,968명, 지역의 40.2%로 가장 높고 도 지역에서는 제주가 평균 1,466명, 지역의 32.2%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선택률은 서울이 40.2%로 가장 높고, 다음

<표 2> 경제 과목을 선택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시	서울	36,420	38.8	34,896	37.2	37,426	40.8	39,726	41.2	42,018	41.0	42,160	41.6	38,968	40.2
	부산	6,000	19.8	6,000	19.8	5,204	17.4	6,284	19.8	7,148	20.8	5,514	16.0	6,088	19.0
	대구	5,236	21.0	5,896	22.8	6,454	24.8	7,910	29.4	8,290	29.0	6,756	23.4	6,926	25.6
	인천	5,570	24.0	6,224	26.0	6,116	24.8	7,266	27.0	9,196	31.4	8,284	28.2	7,340	27.2
	광주	3,148	22.6	2,484	17.4	3,156	21.6	3,674	23.8	3,266	19.4	3,158	18.2	3,186	20.8
	대전	1,112	7.6	1,588	10.8	1,890	12.6	2,646	16.4	2,664	15.2	2,424	13.6	2,214	13.4
	울산	3,150	29.6	2,856	25.2	1,642	14.0	2,122	16.8	2,184	15.8	2,004	14.4	2,440	20.6
도	경기	20,830	25.2	26,116	29.8	26,662	29.0	29,292	29.0	31,392	28.4	28,126	24.6	27,468	27.8
	강원	1,478	16.0	1,286	13.6	1,500	15.6	1,148	11.6	1,004	9.4	408	3.8	1,256	13.0
	충북	2,480	21.0	2,634	22.4	2,246	19.0	2,744	21.8	2,536	18.8	2,164	15.6	2,484	20.0
	충남	2,736	17.0	2,690	16.8	2,440	15.2	2,838	16.8	2,892	15.8	2,820	14.8	2,744	16.0
	전북	2,974	21.6	2,892	20.4	3,100	21.4	2,412	15.8	2,584	15.8	2,154	12.8	2,726	18.4
	전남	3,848	26.8	4,122	28.8	3,022	21.2	3,502	23.6	2,844	17.8	3,380	20.8	3,510	23.6
	경북	4,864	22.8	4,410	20.6	4,914	22.8	4,872	22.2	4,688	20.8	4,492	19.8	4,714	21.6
	경남	3,910	14.6	5,218	18.8	5,148	18.2	4,530	15.0	4,446	13.6	4,022	12.2	4,600	15.6
	제주	982	24.8	1,456	35.6	1,532	36.0	1,518	33.0	1,540	30.6	1,590	30.6	1,466	32.2
	전국	104,732	25.4	110,760	26.4	112,448	26.4	122,478	27.0	128,682	26.4	119,450	24.2	116,970	26.0

주: <표 1>과 같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3〉 경제 과목을 선택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성별 및 지역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남 학 생	시	서울	19,226	39.4	17,614	36.0	20,240	42.2	21,822	43.4	23,886	44.6	24,692	46.0	21,540	42.2	
		부산	3,586	23.2	3,516	22.6	2,894	18.8	3,654	22.4	4,608	26.0	3,564	19.8	3,706	22.4	
		대구	3,364	24.4	3,372	23.8	3,652	26.2	3,798	26.6	4,540	30.0	4,376	28.8	3,904	27.0	
		인천	2,982	25.2	3,210	26.2	2,948	23.4	4,070	28.8	5,306	35.0	4,888	32.0	4,122	29.4	
		광주	2,068	30.0	1,458	20.4	1,898	26.2	2,404	31.0	2,198	26.0	2,254	25.8	2,092	27.0	
		대전	576	7.6	1,118	14.4	1,138	14.4	1,626	19.6	1,870	20.8	1,718	18.8	1,488	17.4	
		울산	1,418	25.2	1,558	25.6	746	11.8	980	14.6	1,076	14.6	844	11.2	1,182	18.6	
	도	경기	10,906	25.8	13,530	29.8	13,150	27.6	14,460	28.0	16,116	28.4	14,514	24.6	13,962	27.4	
		강원	924	17.8	840	16.0	1,026	19.4	768	14.0	550	9.2	368	6.0	812	15.2	
		충북	1,160	19.4	1,382	23.0	1,164	19.2	1,510	23.4	1,392	20.2	1,354	19.0	1,338	20.8	
		충남	1,686	19.8	1,150	13.4	966	11.2	1,220	13.6	1,374	14.2	1,628	16.0	1,386	15.2	
		전북	2,074	29.0	2,274	30.6	2,342	30.0	1,476	18.2	1,988	23.4	1,656	19.2	2,018	25.8	
		전남	2,720	38.0	2,528	35.2	2,042	28.2	2,460	32.8	1,832	22.8	1,896	23.2	2,296	30.8	
		경북	2,838	24.2	2,280	19.2	2,508	21.2	2,826	23.6	2,188	17.8	2,304	18.4	2,518	21.0	
		경남	2,044	14.2	2,618	17.4	3,116	20.2	2,654	16.2	2,884	16.4	2,298	12.8	2,650	16.4	
		제주	298	14.8	416	20.0	672	30.6	482	20.8	1,028	40.4	804	30.2	716	29.4	
	전국	57,862	27.0	58,858	26.6	60,498	27.0	66,204	28.0	72,830	28.6	69,154	26.6	64,714	27.4		
	여 학 생	시	서울	17,194	38.2	17,282	38.8	17,186	39.4	17,904	39.0	18,132	37.2	17,468	36.8	17,534	38.2
			부산	2,414	16.4	2,486	16.8	2,310	15.8	2,630	17.0	2,540	15.2	1,950	12.0	2,408	15.6
대구			1,872	16.8	2,524	21.6	2,802	23.2	4,112	32.4	3,750	27.6	2,380	17.4	3,118	24.6	
인천			2,590	22.8	3,014	25.8	3,170	26.4	3,196	24.8	3,890	27.6	3,396	24.0	3,256	25.4	
광주			1,080	15.2	1,026	14.2	1,258	17.2	1,272	16.4	1,068	12.8	904	10.6	1,116	14.6	
대전			536	7.6	470	6.6	752	10.4	1,020	13.0	794	9.2	706	8.2	758	9.8	
울산			1,732	34.8	1,298	24.8	896	16.4	1,142	19.2	1,108	17.4	1,160	18.2	1,276	23.2	
도		경기	9,926	24.8	12,586	29.6	13,512	30.4	14,832	30.0	15,276	28.2	13,612	24.6	13,520	28.0	
		강원	554	13.6	446	10.4	476	11.0	380	8.6	454	9.8	40	0.8	462	10.6	
		충북	1,322	22.8	1,252	22.0	1,084	18.8	1,234	20.0	1,144	17.2	810	12.0	1,164	19.2	
		충남	1,050	14.0	1,540	20.4	1,476	19.6	1,618	20.4	1,518	17.6	1,192	13.6	1,428	18.0	
		전북	900	13.6	620	9.2	758	11.4	936	13.0	598	7.6	498	6.0	754	10.8	
		전남	1,130	15.8	1,594	22.4	980	14.0	1,042	14.2	1,012	12.8	1,486	18.2	1,256	16.8	
		경북	2,026	21.2	2,132	22.2	2,406	25.0	2,048	20.8	2,500	24.6	2,188	21.4	2,230	22.6	
		경남	1,866	15.0	2,600	20.4	2,032	15.8	1,876	13.4	1,562	10.4	1,724	11.2	1,998	15.0	
		제주	684	34.8	1,042	52.0	860	41.8	1,038	45.4	512	20.6	786	30.8	862	39.8	
전국		46,870	23.8	51,902	26.0	51,950	25.6	56,274	26.0	55,852	23.8	50,298	21.4	52,390	24.4		

주: 〈표 1〉과 같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으로 제주 32.2%, 경기 27.8%, 인천 27.2%, 대구 25.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선택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중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제주 지역에서 선택률이 2005년에 비해 높아진 반면 나머지 11개 지역의 선택률은 낮아졌다. 특히, 강원 지역은 2010년 중 경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3.8%로 서울 지역의 1/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사회탐구 심화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학생을 성별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2005년 이후 시 지역에서는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남학생의 선택률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도 지역에서는 경기, 충남, 경북, 제주 지역에서 오히려 여학생의 선택률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수 및 난이도 분석

1)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 과목 수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2008년에 확정하여 예고한 바와 같이 2012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탐구영역 선택 과목 수 축소’ 방침에 따라 4개 과목에 응시한 학생의 비율은 <표 4>와 같이 2011학년도부터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최대 선택 과목 수가 2012학년도부터 3과목으로 줄어들 예정인데도 2011학년도에 이미 4과목에 모두 응시하는 학생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은 이 시기에 주요 대학에서 입시에 반영하는 선택 과목 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 선택 과목 수가 11개에서 10개로 축소되는 한편,

<표 4>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선택 과목 수별 응시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7학년도		2008학년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평균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1과목	270	0.1	233	0.1	264	0.1	282	0.1	418	0.1	733	0.2	367	0.1
2과목	5,374	1.7	5,207	1.6	5,117	1.6	5,522	1.5	16,197	4.2	26,426	7.2	10,641	3.1
3과목	30,922	9.8	27,673	8.7	27,852	8.5	29,926	8.0	74,867	19.3	341,279	92.6	88,753	25.5
4과목	279,924	88.4	283,901	89.6	293,714	89.8	336,383	90.4	296,405	76.4	-	-	248,388	71.3
전체	316,490	100.0	317,014	100.0	326,947	100.0	372,113	100.0	387,887	100.0	368,438	100.0	348,148	100.0

주: 2012학년도에 최대로 응시할 수 있는 사회탐구 선택과목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듦.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각년도.

〈표 5〉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7학년도		2008학년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평균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경제	88,068	27.8	84,239	26.6	80,559	24.6	84,837	22.8	75,372	19.4	41,726	11.3	75,800	21.8
사회문화	227,422	71.9	231,950	73.2	247,329	75.6	280,470	75.4	287,918	74.2	239,665	65.0	252,459	72.5
정치	106,392	33.6	108,958	34.4	113,083	34.6	127,937	34.4	124,623	32.1	92,602	25.1	112,266	32.2
법과사회	62,434	19.7	57,009	18.0	56,111	17.2	63,735	17.1	63,520	16.4	46,838	12.7	58,275	16.7
윤리	161,421	51.0	165,127	52.1	171,001	52.3	188,966	50.8	200,806	51.8	152,976	41.5	173,383	49.8
한국지리	214,499	67.8	221,773	70.0	220,083	67.3	248,246	66.7	238,620	61.5	187,941	51.0	221,860	63.7
세계지리	37,917	12.0	40,047	12.6	40,551	12.4	49,094	13.2	56,531	14.6	43,840	11.9	44,663	12.8
경제지리	54,286	17.2	52,925	16.7	54,104	16.5	61,375	16.5	52,890	13.6	29,999	8.1	50,930	14.6
국사	69,507	22.0	57,570	18.2	58,635	17.9	69,704	18.7	63,838	16.5	43,441	11.8	60,449	17.4
한국근현대사	168,414	53.2	174,834	55.2	193,905	59.3	233,487	62.7	236,487	61.0	167,236	45.4	195,727	56.2
세계사	33,120	10.5	34,838	11.0	33,549	10.3	38,785	10.4	42,428	10.9	31,158	8.5	35,646	10.2
전체	316,490	100.0	317,014	100.0	326,947	100.0	372,113	100.0	387,887	100.0	368,438	100.0	348,148	100.0

주: 복수 선택으로 비율의 합계는 100이 아님.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각년도.

학생들이 최대로 응시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다시 3개에서 2개로 줄어들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사회탐구 심화 선택 과목으로 응시한 학생은 〈표 5〉와 같이 2007학년도 이후 평균 75,800명으로 사회탐구 과목 응시자 전체의 21.8%에 불과하다. 과목별로는 사회문화 과목이 사회탐구 과목 응시자 전체의 7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지리 과목 63.7%, 한국근현대사 과목 56.2%, 윤리 과목 49.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사회 영역에서 경제 과목 응시율은 평균적으로 사회문화 과목과 정치 과목에 비해서 낮은 반면 법과사회 과목에 비해서는 높았다. 전체 11개 과목 중 응시율이 경제 과목보다 낮은 과목은 법과사회, 세계지리, 경제지리, 국사 및 세계사 과목이다. 이에 따라 경제 과목에 응시한 학생의 비율은 사회탐구 11개 과목 중 6번째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사회탐구 심화선택 과목으로 응시한 학생이 사회탐구 과목 응시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학년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과목 응시율은 2012학년도에 11.3%로 크게 낮아져 2007학년도 27.8%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2012학년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대로 응시할 수 있는 사회탐구 선택과목 수가 4개에서 3개로 축소되면서 모든 과목에서 학생들의 응시율이 크게 낮아졌다. 모든 과목에서 학생들의 응시율이

2011학년도부터 낮아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 주요 대학에서 입시에 반영하는 선택 과목 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제 과목에 대한 응시율은 일반사회 영역에서 2011학년도까지 사회문화와 정치 과목에 이어 3번째를 차지했으나 2012학년도에 크게 낮아지면서 법과사회 과목에도 역전되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교육과정 개편으로 사회탐구 선택 과목 수가 총 10개로 줄어들고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대 응시할 수 있는 선택 과목 수가 2개로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수월한 과목을 제외한다면 경제 과목을 비롯한 대다수의 과목의 응시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³⁾

2)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난이도

경제 과목은 <표 6>과 같이 2007학년도 이후 평균 23.2점으로 가장 어려웠고 다음으로 국사 23.3점, 윤리 24.7점, 법과사회 25.8점, 세계사 26.1점, 정치 26.7점, 근현대사 26.8점, 사회문화 27.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리영역인 한국

<표 6>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원점수 평균 추이

(단위: 점)

구분	2007		2009		2010		2011		2012		평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제	29.2	10.3	20.0	9.3	20.2	9.9	22.0	12.2	25.0	13.1	23.2	11.4
사회문화	28.1	9.3	25.6	10.4	26.5	10.7	28.6	11.9	27.5	12.5	27.3	11.1
정치	29.8	10.8	28.9	11.1	26.7	11.6	20.4	9.7	28.7	12.5	26.7	11.7
법과사회	30.9	11.8	27.8	11.1	20.6	10.9	23.9	10.9	26.3	13.1	25.8	12.1
윤리	22.6	9.3	22.3	10.5	26.8	12.2	25.6	13.5	25.6	12.2	24.7	11.8
한국지리	28.1	9.7	25.3	10.7	24.6	9.7	27.4	11.9	32.1	12.8	27.3	11.3
세계지리	24.4	11.6	23.9	11.3	29.5	11.3	28.6	11.9	29.9	12.4	27.5	12.0
경제지리	29.1	9.4	27.9	9.1	30.8	9.7	26.0	9.7	31.8	11.3	28.9	9.9
국사	26.4	14.0	23.6	13.9	21.8	12.9	21.6	13.5	22.9	13.5	23.3	13.7
한국근현대사	28.0	12.2	24.4	12.2	27.1	14.2	28.2	13.5	26.3	12.5	26.8	13.1
세계사	28.2	12.8	21.8	12.8	25.6	14.2	27.1	14.2	27.8	13.9	26.1	13.8
평균	27.7	10.9	24.7	11.2	25.5	11.9	25.4	12.6	27.6	12.9	26.2	11.9

주: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의 도수 분포를 이용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각년도.

3)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였다. 우선, 과목의 학습 요소 측면에서 내용이 어렵지 않거나 양적으로 학습 분량이 적은 과목을 학생들이 수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의 측면에서 응시자의 수가 많은 과목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등급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표 7〉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원점수의 구간별 분포

(단위: %)

구분	경제	사회문화	정치	법과사회	윤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국사	근현대사	세계사	평균	
2007	0~10점	3.0	3.7	5.2	2.8	8.0	4.2	12.3	3.1	16.1	6.4	7.0	6.5
	10~20점	17.8	17.0	14.2	17.7	35.2	18.1	26.2	14.6	24.0	25.1	26.9	21.5
	20~30점	31.1	32.1	28.0	27.4	33.3	30.5	25.1	32.3	17.2	23.8	18.8	27.2
	30~40점	31.8	39.5	33.5	22.7	20.2	37.2	26.1	38.7	18.2	22.7	23.7	28.6
	40~50점	16.3	7.8	19.2	29.4	3.4	10.0	10.2	11.3	24.5	21.9	23.6	16.2
2009	0~10점	13.7	7.5	4.5	3.2	9.9	6.0	13.1	3.2	20.8	13.4	20.8	10.6
	10~20점	40.8	24.0	18.0	23.5	39.1	27.9	29.0	17.1	27.8	31.4	33.1	28.3
	20~30점	28.9	33.5	24.2	29.8	27.3	32.9	23.1	35.5	16.9	19.4	17.2	26.2
	30~40점	14.6	27.0	33.0	24.8	16.5	22.9	26.5	36.2	15.4	21.3	18.4	23.3
	40~50점	2.0	7.9	20.3	18.7	7.3	10.4	8.2	8.1	19.0	14.6	10.6	11.5
2010	0~10점	14.9	6.3	7.5	18.6	7.9	5.5	3.5	3.0	20.0	11.6	10.5	9.9
	10~20점	40.7	22.4	25.4	37.8	27.1	30.5	18.9	12.1	33.2	26.7	33.4	28.0
	20~30점	26.0	32.1	26.2	22.2	27.5	33.1	26.8	25.3	19.2	15.5	16.5	24.6
	30~40점	14.5	28.8	25.6	13.9	17.1	24.3	29.7	43.7	16.1	17.9	14.2	22.4
	40~50점	4.0	10.3	15.2	7.5	20.5	6.5	21.0	15.9	11.6	28.2	25.4	15.1
2011	0~10점	20.6	8.2	14.3	10.5	10.9	7.7	6.2	6.2	21.7	9.3	10.4	11.5
	10~20점	30.9	17.6	38.6	29.1	32.1	23.6	20.2	21.1	32.3	23.5	26.4	26.8
	20~30점	21.0	27.1	28.5	32.2	20.3	28.3	26.9	36.5	18.2	25.0	21.1	25.9
	30~40점	17.1	27.5	16.1	18.2	16.1	22.0	25.9	28.9	12.2	15.4	15.2	19.5
	40~50점	10.4	19.6	2.4	10.0	20.7	18.3	20.6	7.3	15.6	26.9	27.0	16.3
2012	0~10점	14.3	7.9	6.3	10.5	10.1	3.8	3.2	3.8	17.2	8.6	12.2	8.9
	10~20점	28.4	21.8	19.4	30.1	29.7	17.2	21.6	12.9	34.0	26.1	23.5	24.1
	20~30점	20.6	24.7	25.2	19.9	23.0	22.8	25.0	23.0	20.3	23.1	19.4	22.5
	30~40점	20.3	25.3	24.6	18.0	20.7	23.1	20.8	32.4	11.4	21.9	16.5	21.4
	40~50점	16.4	20.3	24.5	21.5	16.5	33.1	29.4	28.0	17.0	20.3	28.3	23.2

주: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의 도수 분포를 이용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각년도.

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과목은 각각 27.3점, 27.5점, 28.9점으로 사회탐구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쉽게 출제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중 경제 과목의 난이도는 2009학년도 이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학년도의 응시율 하락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제 과목은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에 가장 어려웠고 2011학년도에는 세 번째로 어려웠으며 2012학년도에는 두 번째로 어려웠다.

원점수의 평균을 <표 7>과 같이 구간별 분포로 나타내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등과 같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학생이 각 과목에 대해 느끼는 난이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그림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에는 경제 과목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10~20점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40~50점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는 점에서 중위권 또는 상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11학년도 이후에는 상위권보다는 중위권 또는 하위권 학생들이 경제 과목을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2학년도에는 모든 과목이 쉽게 출제됨에 따라 경제 과목은 국사 과목 다음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점수의 평균과 고득점자의 비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상위권보다는 중위권 또는 하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와 선택률 분석결과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의 난이도가 선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 모형은 모두 4개이다. 우선 모형 1과 모형 2는 선택률을 종속변수로 이용했고 모형 3과 모형 4는 선택률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모형 1과 모형 3에서는 사회탐구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반면 모형 2와 모형 4는 범위를 좁혀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경제, 사회문화, 정치, 법과사회 과목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Hausman 검정 결과 모형 1~모형 4에서 추정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패널모형 설정을 위한 가정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이용하여 난이도가 선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8〉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난이도와 선택률(패널모형)

종속변수 모형		선택률				선택률 변화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고정	확률	고정	확률	고정	확률	고정	확률
설명변수									
난이도		-0.061** (0.019)	-0.060** (0.019)	-0.138** (0.037)	-0.137** (0.037)	-0.067** (0.024)	-0.083** (0.020)	-0.138** (0.043)	-0.145** (0.033)
최대 응시 과목 수		0.329 (0.356)	0.329 (0.356)	-1.303* (0.593)	-1.303* (0.592)	1.350** (0.437)	1.356** (0.412)	-1.088 (0.686)	-1.088 (0.637)
상수항		26.851** (2.366)	26.907** (2.977)	22.871** (4.340)	23.045** (4.768)	-11.838** (2.904)	-13.419** (2.528)	-9.256 (5.023)	-9.916* (4.056)
모형 설명력	Adj. R ² : 그룹 내	0.022	0.022	0.089	0.089	0.035	0.035	0.063	0.063
	그룹 간	0.002	0.002	0.001	0.001	0.102	0.102	0.192	0.192
	전체	0.000	0.000	0.002	0.002	0.042	0.042	0.082	0.082
	F 값, Wald χ^2 (자유도)	5.43** (2, 478)	10.71** (2)	9.34** (2, 190)	18.49** (2)	8.70** (2, 478)	28.22** (2)	6.39** (2, 190)	22.50** (2)
Hausman 검정	Wald χ^2 (자유도)	0.28 (2)		0.21 (2)		1.44 (2)		0.06 (2)	

주: 1) *와 **는 각각 5%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3)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F 값과 Wald χ^2 을 사용함.

우선, 모형별로 설명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모형 3과 모형 4에서는 과목별 선택률 자체보다는 선택률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절대적인 선호도의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목별로 학생의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모형 3과 모형 4의 설명력이 모형 1과 모형 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 1~모형 4에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모형에 관계없이 모두 난이도가 선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목의 평균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을수록, 즉 어떤 과목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쉬울수록 해당 과목을 심화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탐구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일반사회 영역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선택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 이는 난이도가 영역 간보다는 영역 내 과목

〈표 9〉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과목 난이도와 응시율(단순회귀모형)

설명변수		종속변수 모형	응시율		응시율 변화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난이도	1기 전		-0.320** (0.087)	-0.466** (0.119)	-0.119 (0.060)	-0.148 (0.092)
	2기 전		-0.022** (0.062)	-0.377** (0.090)	-0.102* (0.043)	-0.154 (0.070)
	3기 전		-0.147* (0.058)	-0.233* (0.077)	-0.084 (0.040)	-0.117 (0.060)
최대 응시 과목 수			10.760** (1.521)	10.189** (1.533)	5.408 (1.041)	5.286** (1.191)
9월 모의시험 더미			-1.381 (1.810)	0.273 (1.612)	-0.612** (1.239)	-0.212 (1.252)
대학수학능력시험 더미			0.523 (1.902)	1.179 (1.570)	0.005 (1.301)	0.140 (1.220)
상수항			-86.117** (13.847)	-120.090** (20.426)	-52.364** (9.475)	-62.373** (15.870)
모형설명력	Adj. R ² :		0.877	0.877	0.777	0.714
	F 값(자유도)		16.38**(6, 7)	16.49**(6, 7)	8.53**(6, 7)	6.40*(6, 7)

주: 1) *와 **는 각각 5%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간 선택률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반사회 영역 내에서 특정 과목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크게 어려워졌다면 학생들은 지리 영역, 윤리 영역, 역사 영역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일반사회 영역 내에서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과목의 난이도가 응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앞과 마찬가지로 모형 5와 모형 6은 응시율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였고 모형 7과 모형 8은 응시율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이용했다. 한편, 모형 5와 모형 7에서는 경제 과목의 난이도를 사회탐구 영역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측정된 반면 모형 6과 모형 8은 범위를 좁혀 일반사회 영역 평균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앞의 분석과는 달리 경제 과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응시율의 변화보다는 응시율 자체를 종속변수로 삼은 모형 5와 모형 6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

났다. 경제 과목의 난이도는 모형 5와 모형 7에서 모두 1~3기의 시차를 두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최대 응시 과목 수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IV. 맺 음 말

최근 교육과정 개편으로 사회탐구 선택과목 수가 총 10개로 줄어들고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대 응시할 수 있는 선택과목 수가 2개로 줄어들어 각 과목에 대한 응시율은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사회탐구 선택과목 수는 일반사회 영역 3과목(경제, 사회문화, 법과정치), 지리 영역 2과목(한국지리, 세계지리), 역사 영역 3과목(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윤리 영역 2과목(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등 총 10개로 줄어들었다.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법과사회와 정치 과목이 법과정치 과목으로 통합되면서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들고 지리 영역에서는 경제지리 과목이 없어져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역사 영역에서는 국사와 한국근현대사가 한국사와 동아시아로 재편되었을 뿐 과목 수는 3개로 변함이 없고, 윤리 영역에서는 오히려 생활과윤리와 윤리와사상 과목으로 분화되어 과목 수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대 응시할 수 있는 선택과목 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어 각 과목에 대한 응시율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이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사회문화, 지리 영역에서는 한국지리, 역사 영역에서는 한국사 또는 동아시아사, 윤리 영역에서는 생활과윤리 등 상대적으로 공부하기에 수월하다고 인식되는 과목에 몰린다면 경제 과목을 비롯한 대다수의 과목의 응시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사회탐구 심화선택 과목으로 응시한 학생이 사회탐구 과목 응시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학년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과목 응시율은 2012학년도에 11.3%로 크게 낮아져 2007학년도 27.8%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경제 과목에 대한 응시율이 낮아진 데는 그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한다. 특목고 학생을 비롯한 우수한 학생의 경제 과목에 대한 응시율이 높아지다보니 과목별로 난이도를 맞춘다는

이유로 경제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어 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악순환의 구조가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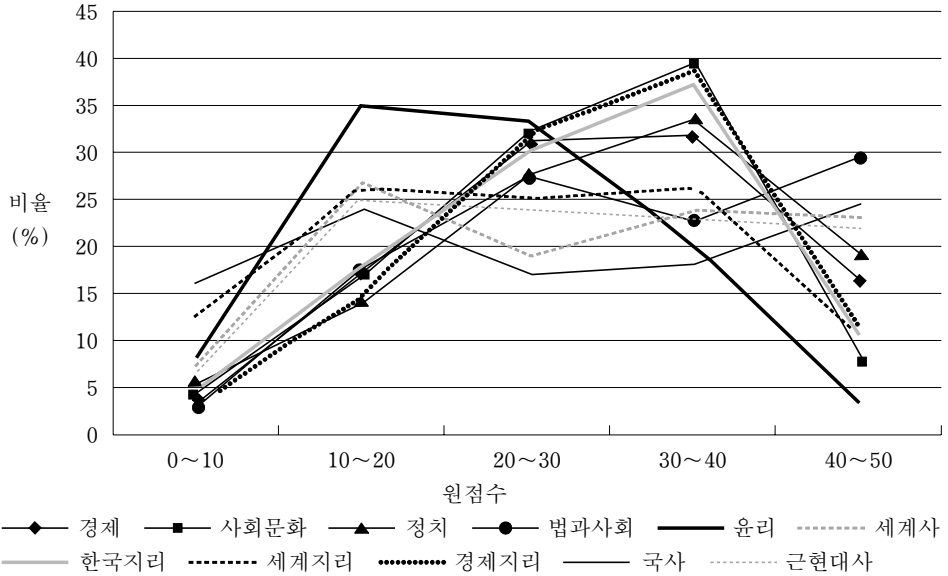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검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점수를 추정한 후 고등학교에서 선택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응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경제 과목에 대한 선택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패널모형과 단순회귀모형을 통해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률과 경제 과목의 응시율을 분석한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려울수록 고등학교에서의 선택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응시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교육은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환경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의 경제환경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경쟁적이며 기술복합적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과거처럼 단순하고 비경쟁적이며 인간적인 사회 속에서의 경제교육의 필요성이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래 사회에서의 경제교육의 가치는 중요해질 것이다. 국가 경제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달려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경제의식이나 이해력 수준은 해당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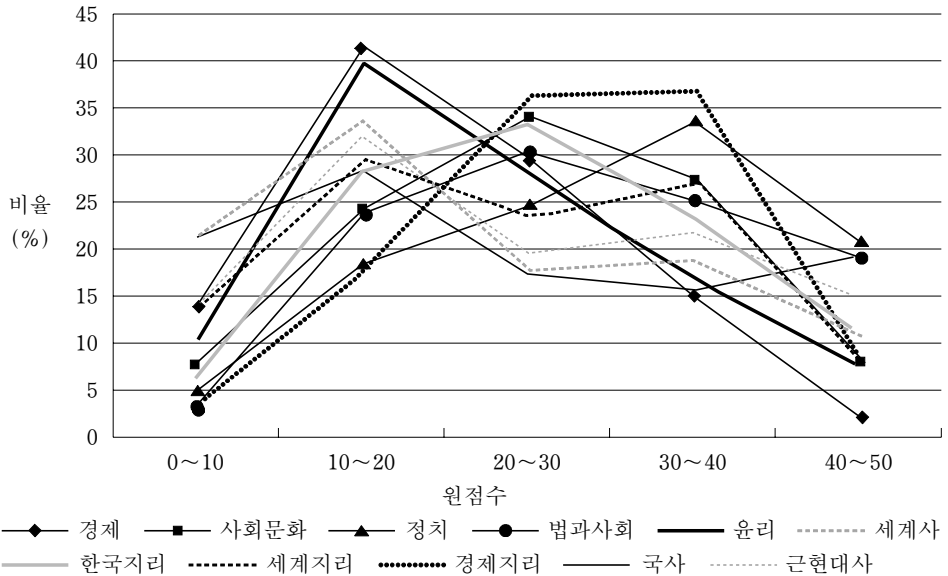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경제 과목 선택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경제 과목 응시율이라는 제한된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단면을 보여 줄 수 있었다. 향후 경제교육의 중요성만큼 경제교육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분석이 기대된다.

4)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서는 표준점수뿐만 아니라 등급의 분포도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특정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면 그 다음 등급이 소멸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위권 학생의 응시비율이 높은 과목의 경우에 문항이 쉽게 출제된다면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너무 높아 2등급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응시비율이 높은 과목일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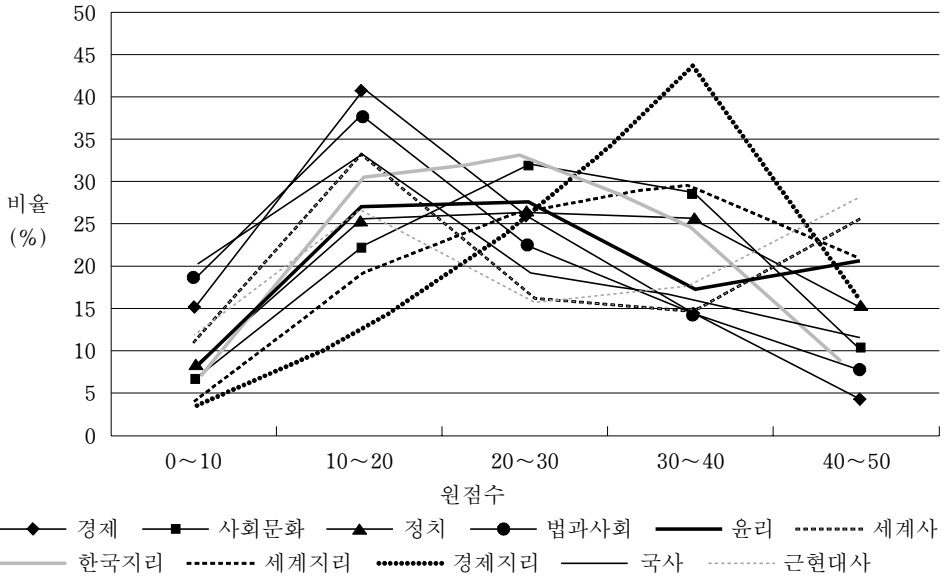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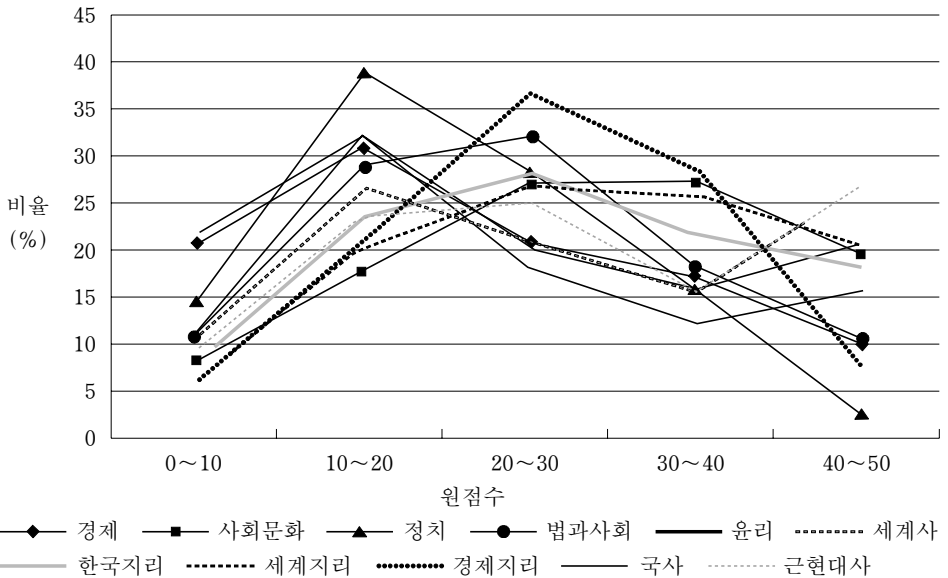
〈부도 1〉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원점수의 구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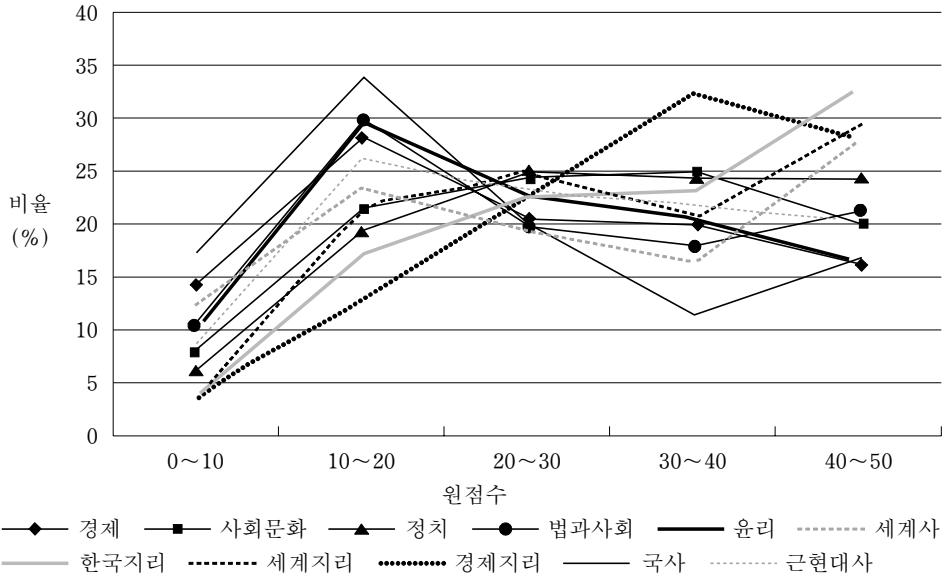
〈부도 2〉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원점수의 구간별 분포



〈부도 3〉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원점수의 구간별 분포



〈부도 4〉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원점수의 구간별 분포



〈부도 5〉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원점수의 구간별 분포

참 고 문 헌

- 안병근, “대학대입 수능시험에서 ‘경제’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2010, 1~16.
- 은지용·진재관·김성준·이진희·박영경,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사회탐구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이상준, “학교선택, 가구, 성실성, 면학분위기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연구』 제19권, 2007, 39~74.
- 이의영·김현철, “2000학년도 경제 과목 대입수능시험의 검사 및 문항특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제7호, 2001, 263~283.
- 최종민, “전북지역 고등학교 경제교육 실태조사 분석,” 『경제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2008, 1~24.
- 한경동·장경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2011, 45~58.
- 한진수, “최종 제안 게임에서 어린이와 어른의 선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2호, 2011, 51~80.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자료,” 각년도.

[Abstract]

An Analysis of Correlations between the Difficulties of Test and Its Selection of Economics Subject a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Yun Ho Chung** · Kyungdong Hahn*** · Kyungho Jang****

The ratio of students who select the economics test as opposed to the ratio of ones who select at least one test among social studies subjects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has been falling since 2007. That is, the ratio of year 2012 is only 11.3%, about a third of 27.8%, the ratio of year 2007. Teachers at school suspect that the reason why the ratio has been falling recently is that the economics test has been made too difficult. Since nationally high-achieving students including those at the specialized high schools have been selecting the economics test more, the economics test tends to be made harder and harder for controlling the scores of the test the same, on average, as the scores of other subject tests. And it gets trapped into a vicious circle of making the economics test even harder.

In this study, to verify the suspicion of the teachers at school for the reason of economics test being selected less, the raw scores of CSAT taken by the students are estimated, which have never been reported publically. The estimation of raw scores would tell us the correlation between offering the economics class at school and selecting the economics test at CSAT. The result from a technical analysis shows that the ratios of offering the economics class at school for different regions significantly vary, and it is in fact in the level of serious concern. A panel analysis and a simple regression analysis are also used to test the ratios of class offering among social studies subjects and the ratios of economics test selection, respectively,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subjects with relatively harder tests, in effect, lowe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 First Author, Lecturer, Department of Economics, Konkuk University, Tel: +82-2-450-0478, E-mail: yunster@empas.com

*** Co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el: +82-2-2173-3101, E-mail: khahn@hufs.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nha University, Tel: +82-2-860-7861, E-mail: kjang@inha.ac.kr

both ratios of the class offering at school and the test selection at CSAT.

Keywords: economic education, social studies subjec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level of difficulty, selection ratio

JEL Classification: A0, A2, I2